

## 미래 에너지 스테이션으로 대전환하는 주유소 · LPG충전소

전국 1만3천여개 주유소·LPG충전소, 수소충전소로 사업전환  
하이넷 · 코하이젠 · 한국주유소협회 · 한국LPG산업협회 공동 MOU 체결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코하이젠·한국주유소협회·한국LPG산업협회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전환 및 수소충전소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협약은 2021.11.26. 개최된 제 4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사전행사로 개최되어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정에 환경부장관의 배석하에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공급하던 주유소 및 LPG충전소 업계와 미래 에너지를 상징하는 수소충전소 업계 간의 에너지 전환과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고민하여 마련한 협약으로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유소와 LPG충전소 업계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하이넷과 코하이젠은 제공된 부지를 활용하여 자체 자금과 정부 예산 지원 등을 통하여 전국에 수소충전소를 구축 및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하이넷과 코하이젠은 전국의 1만 3천여개의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한 여유 부지를 확보한 주유소·LPG 충전소와 휴·폐업 주유소·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적합성을 검토한 후 구축이 가능한 부지에 순차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부응하여, 화석연료를 공급해오던 기존의 주유소와 LPG충전소가 향후 수소와 전기 등을 충전하는 미래에너지 스테이션으로 대거 전환한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생활 밀접 시설에서 탄소중립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앰바고 : 11.26(금) 오전 11:30**

우리나라 최초로 수소인프라 구축 전문회사로 설립된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대표: 도경환)와 코하이젠 (대표: 이경실)은 그동안 2030년까지 전국에 66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수소충전소 구축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적정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여 왔다.

반면 최근 자동차업계의 내연기관 차량 단종 선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와 LPG충전소 업계는 사업영역 축소에 따른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수소충전소로의 전환은 기존의 사업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안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소충전소 업계의 입장에서 도심지 또는 차량 통행이 많은 기존 주유소·충전소 부지를 활용함에 따라 수소충전소 구축이 용이해져 상호 간의 이득이 되는 상생 협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 협약을 계기로 양 업계는 친환경적 사업전환 및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에 개선 건의할 계획이며, 국민 생활 밀접한 곳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수소자동차의 친환경성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긍정적인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첨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전환 및 수소충전소 확산 MoU 협약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전환 및 수소충전소 확산」을 위한

## 업 무 협 약 서

한국주유소협회, 한국LPG산업협회와 수소에너지네트웍(주), 코하이젠(주)(이하 “협약당사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상호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탄소중립과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주유소·충전소 업계의 친환경적 사업전환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간에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본 협약 당사자는 아래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1. 한국주유소협회, 한국LPG산업협회는 관련 사업장 부지 중 적정부지를 수소에너지네트웍(주), 코하이젠(주)에 제공하여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수소에너지네트웍(주) 및 코하이젠(주)는 제공된 부지를 활용하여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충전인프라 확대에 기여한다.
3. 본 협약 당사자는 주유소업계 및 LPG업계의 친환경적 사업전환 및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수소자동차의 친환경성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3조(협약서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각 협약 참여자가 서명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문서로 업무협력의 종결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시행하기로 하고 이 협약서에 서명한다.

2021년 11월 26일

2021년 11월 26일

수소에너지네트웍(주) 사장  
도 경 환

---

코하이젠(주) 대표이사  
이 경 실

---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유 기 준

---

한국LPG산업협회 회장  
김 상 범

---